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금리 상승에도, M7 실적 기대감, 유가 하락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8일(월) 미국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우려 완화로 인한 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위험 선호 심리 부각된 영향으로 3대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0.65%, S&P500 +0.27%, 나스닥 +0.26%)

WTI 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약 6% 하락한 배럴당 67.3 달러 기록., 종가 기준 7주 만에 최저치. 이스라엘은 지난 26일 이란에 보복성 공격을 감행하며 재차 지정학적 긴장감을 조성. 다만, 이란이 석유시설을 제외한 군사시설만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제한됨에 따라 금융시장 내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력은 감소.

댈러스 연은에서 발표한 10월 제조업 지수는 -3.0을 기록하며 전월치(-9.0) 대비 상승, 여전히 기준선인 0을 하회하며 위축 국면 지속. 세부 지수를 살펴보면,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7.8 급등한 14.6을 기록하며,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그 외에 신규 주문지수도 전월 대비 1.5 증가한 -3.7, 생산능력 활용도와 출하량 지수도 큰 폭 상승. 다만,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8포인트 하락하며 -5.1 기록.

한편, 이 날 미국채 10년물금리는 4.3%선까지 근접하며 전 거래일 대비 약 40bp 상승. 11월 미 연준의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한 가운데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견조한 수치를 기록한 점이 금리 상승 요인. 그 외에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큰 폭 증가한 점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여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마이크로소프트(-0.36%), 엔비디아(-0.72%), 테슬라(-2.48%)는 하락한 반면, 알파벳 (+0.88%), 메타(+0.86%), 아마존(+0.30%), 애플(+0.86%) 등은 상승한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1.1%), 소재(+0.8%), 유트리티 (+0.8%) 등이 상승한 반면, 유가 급락 영향으로 에너지(-0.7%)의 하락폭이 가장 컸음.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애플(+0.8%), MS(-0.4%), 엔비디아(-0.8%), 테슬라(-2.5%) 등 M7주들은 이번주 예정된 실적 이벤트를 앞둔 대기심리로 혼재된 주가흐름을 보였음에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위험선호심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이는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완화에 따른 WTI유가 급락(-5.3%), 일본 선거 이후 엔화약세 강화(153.2엔) 등 인플레 재 가속화 및 엔-캐리 청산 재발 우려 등 매크로 상 특정 불안 요인이 소강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반면 트럼프미디어(+21.6%) 주가 폭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는 등 대선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10년물 금리가 4.3%대 부근까지 상승했다는 점이 나스닥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향후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다만, 이의 성장이 개선되거나 금리 고점 인식이 생성될 시 큰 부담 없이 금리 상승 문제를 소화할 수 있기는 함. 그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M7 실적, 10월 비농업 고용 및 ISM 지표인 만큼, 해당 이벤트 전후로 주가 변동성 확대는 감당해야할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M7을 중심으로한 나스닥 강세, 주말 중 전해진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완화, 엔화 약세 출현 등 우호적인 대외 환경에 힘입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수출주 및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급등(코스피 +1.1%, 코스닥 +1.8%).

금일에는 중동 우려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 발 미국 증시 강세에도, 전일 해당 재료 선반영 인식 속 미국 10년물 금리 급등에 부담을 받으면서 지수 흐름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 장 중에도 미국 금리 향방, 삼성전자의 추가 반등 및 외국인 수급 유입 여부도 중요 하겠지만, 이보다는 하나금융지주, LG생활건강, 삼성전기 등 주력 기업들의 개별 실적에 영향을 받으면서 종목 장세가 연출될 전망.

한편, 10월 3일~23일까지 약 3주간에 걸친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자금흐름을 보면 아시아 국가 내에서 차별화된 자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수급 상 특징적인 부분. 일례로, 해당기간 동안 한국(-15.5억달러), 인도(-82.5억달러) 등 아시아(-89억달러) 대부분 국가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긴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시아 전반에 걸친 자금 유출 강도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최근 3주간 - 15.5억달러 → -82.5억달러 → +17.9억달러). 또 대만(+17.9억달러)의 경우 2주 연속 유입세를 기록하는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9월말 이후 시장에 유행했던 중국 경기 반등에 베팅하는 “차이나 플레이” 유인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차이나 플레이 유행 시 한국, 대만 등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 자금이 이탈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경향). 이 중 대만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점 역시 TSMC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 발표 이후 AI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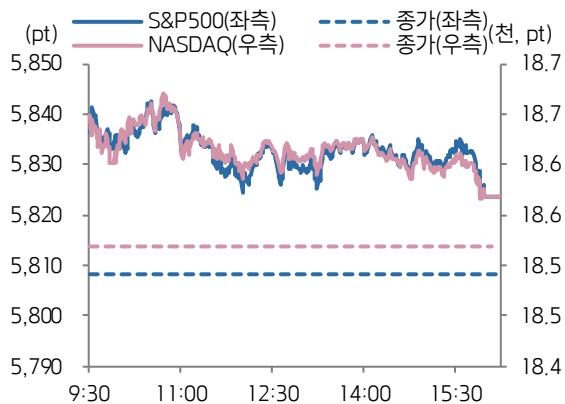
있는 부분..

물론 국내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전일 1%대 강세를 보였음에도 외국인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증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28일에도 코스피 1,300억 순매도). 다음주까지 매크로(고용, ISM, FOMC), 정치(미 대선), 실적(M7 등)과 같이 대형 이벤트를 동시에 치르는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34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종료 등으로 3%대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추정해 볼 수 있듯이, 증시 전반에 걸친 소외현상이 과도했다는 공감대가 수급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보임. 기술적으로도 10월 이후 2,550pt 레벨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차트 상 바닥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나, 후행 PBR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0.9배 이하 구간에서는 하단 저항력이 생성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위안거리가 될 것(28일 종가 기준 후행 PBR 0.91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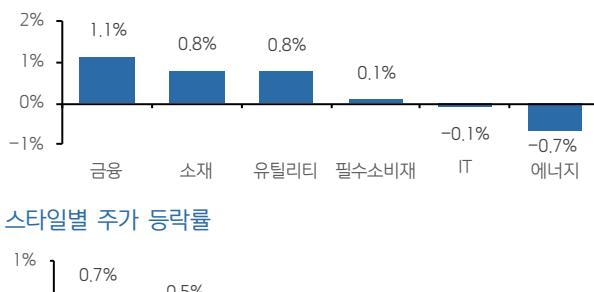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차주까지 대내외 이벤트로 인해 국내 증시가 수시로 변동성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한 생각일 것. 하지만 2,500pt 레인지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 구간으로 상정하면서, 최근 주력 업종 중에 조정이 출현했던 바이오, 혹은 고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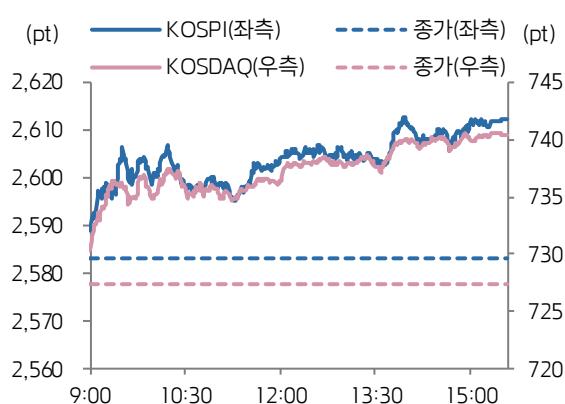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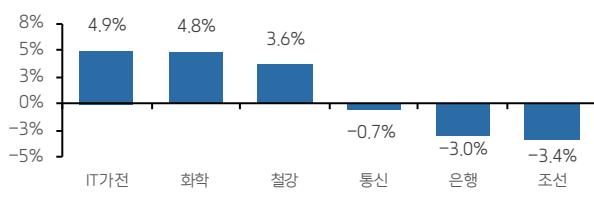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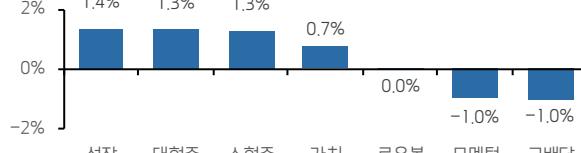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33.40	+0.86%	+21.69%	GM	52.73	+1.27%	+47.99%
마이크로소프트	426.59	-0.36%	+14.06%	일라이릴리	895.59	+0.32%	+54.39%
알파벳	166.72	+0.88%	+19.65%	월마트	82.75	+0.29%	+59%
메타	578.16	+0.86%	+63.83%	JP모건	225.50	+1.43%	+35.73%
아마존	188.39	+0.3%	+23.99%	엑손모빌	118.90	-0.49%	+21.98%
테슬라	262.51	-2.48%	+5.65%	세브론	150.54	-0.18%	+4.21%
엔비디아	140.52	-0.72%	+183.81%	제너럴일렉트릭	82.75	+0.3%	+59%
브로드컴	172.02	-0.57%	+55.76%	캐터필러	390.61	+1.2%	+34.23%
AMD	159.92	+2.36%	+8.49%	보잉	150.69	-2.79%	-42.19%
마이크론	106.39	-1.41%	+25.04%	넥스트에라	82.87	+1.8%	+39.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12.43	+1.13%	-1.61%	USD/KRW	1,385.70	-0.25%	+7.59%
코스피200	347.27	+1.14%	-2.99%	달러 지수	104.30	+0.04%	+2.93%
코스닥	740.48	+1.8%	-14.55%	EUR/USD	1.08	+0.15%	-2.06%
코스닥150	1,265.60	+2.46%	-9.18%	USD/CNH	7.14	+0.15%	+0.27%
S&P500	5,823.52	+0.27%	+22.09%	USD/JPY	153.29	+0.64%	+8.69%
NASDAQ	18,567.19	+0.26%	+23.69%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2,387.57	+0.65%	+12.47%	국고채 3년	2.932	+5.2bp	-21.3bp
VIX	19.80	-2.61%	+59.04%	국고채 10년	3.127	+6.7bp	-4.8bp
러셀2000	2,244.07	+1.63%	+10.7%	미국 국채 2년	4.138	+3.3bp	-11.2bp
필라. 반도체	5,211.67	-0.02%	+24.82%	미국 국채 10년	4.282	+4.2bp	+40.3bp
다우 운송	16,290.08	+1.15%	+2.46%	미국 국채 30년	4.529	+3bp	+50.1bp
상해종합	3,322.20	+0.68%	+11.67%	독일 국채 10년	2.286	-0.5bp	+26.2bp
항셍 H	7,391.22	+0.08%	+28.13%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0,005.04	+0.76%	+10.75%	WTI	67.38	-6.13%	-4.15%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1.42	-6.09%
Eurostoxx50	4,969.83	+0.54%	+9.92%	금	2,755.90	+0.05%	+27.58%
MSCI 전세계 지수	847.93	+0.29%	+16.63%	은	34.00	+0.66%	+41.16%
MSCI DM 지수	3,716.61	+0.29%	+17.27%	구리	436.25	-0.18%	+12.13%
MSCI EM 지수	1,137.94	+0.27%	+11.16%	BDI	1,410.00	-0.49%	-32.66%
MSCI 한국 ETF	61.72	+0.95%	-5.81%	옥수수	410.75	-1.08%	-18.4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58.75	-1.8%
비트코인	69,610.57	+2.84%	+63.76%	대두	986.00	-1.15%	-21.29%
이더리움	2,515.93	+1.08%	+10.24%	커피	252.35	+1.59%	+34.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2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